

MBC <신뢰도, 영향력, 열독률> 모두 1위

2024년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라는 '시사저널'의 설문조사에서 MBC는 영향력·신뢰도·열독률 3개 분야 모두 1위에 올라섰다. MBC는 전문가(43.4%), 일반인(50.4%) 조사 모두에서 '영향력' 1위를 기록했다. 지난해는 KBS가 1위를 차지했다.

MBC는 22년 '바이든-날리면' 보도,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제기,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해병대 채해병 순직 수사 외압 의혹 등 윤 대통령 부부를 등장인물로 하는 굵직한 보도가 터져 나왔다. 권력을 향한 MBC 보도의 구심력과 파급력이 커지면서 방송사 존재감과 영향력을 함께 키우는 결과로 이어졌다. 강연곤(중앙대) 교수

는 "바이든-날리면 논란부터 최근 친일인사 임명 이슈까지 MBC는 '윤석열 정부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며 "정부를 직격하는 언론사를 향해 법적 조치와 제재가 이어지면서 MBC뉴스에 대한 주목도를 높이는 결과를 낳았다"고 평했다.

또한 MBC는 24년 상반기 영업이익이 186억원으로 집계됐으며 5년 연속 흑자달성에 성공했다. 경영 상황이 악화하고 있는 지상파 3사 중 흑자를 기록한 건 MBC가 유일하다. MBC의 지상파 방송 광고 점유율은 25.4%로 199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매체 <2024년>

(단위: %)



2023년 조사 결과

전문가	KBS	조선일보	MBC	네이버	JTBC	SBS	유튜브	중앙일보	한겨레	동아일보
	36.4	36.2	33.8	25.4	13.4	12.0	11.6	10.4	7.4	7.2
일반 국민	KBS	MBC	조선일보	SBS	JTBC	네이버	중앙일보	YTN	동아일보	TV조선
	45.2	44.6	30.2	25.0	18.4	14.2	13.2	11.0	10.2	7.6

임원 워크숍 열려

7월 23일(화) 하반기 첫 임원 워크숍이 열렸다. 이날 오전 9시 20분 사우회 사무실에 모인 14명(7명 불참)의 임원들과 사무처장, 사무국장 등은 MBC가 제공한 버스를 타고 양주 MBC문화동산으로 향했다. 문화동산 내 회의실에서 진행된 간담회는 장명호 회장의 인사에 이어 류근중 사무처장이 '2024년도 상반기 사우회 현황'을 보고했

다. 보고 내용은 상반기 결산 보고, 발전기금 접수 현황, 행사 보고, 기술부문 이사 변경, 회보 발행 현황 등이었다.

이어 현안에 대한 보고로 '보험수수료 대폭 감소'와 '꽃집 명도절차 진행'을 거론했으며 이에 대한 임원들의 논의가 있었다.

사무처장의 보고와 현안에 대한 임원들의 논의가 모두 끝난 후 장

회장은 MBC와 사우회를 위한 광고와 협찬 유치에 임원들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고 특히 차기 사우회장 선임에 대한

임원들의 심사숙고를 촉구했다. 워크숍을 마친 임원들은 인근 식당에서 오찬을 하고 주변을 산책한 후 5시경 해산했다.



MBC+
CREATIVE MEDIA GROUP



발전 기금을 주신 분들(7월 15일 이후)

*상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mbcsau.com)에 있습니다

• 김철순(업무)	50만원	• 성경환(ANN)	30만원	• 김형욱(기술)	10만원	• 윤홍섭(보도)	10만원	• 이경기(관리)	10만원
• 최우철(편제)	50만원	• 김부영(보도)	20만원	• 김조곤(편제)	10만원	• 진성수(기술)	10만원	• 조승필(관리)	10만원
• 정광수(기술)	30만원	• 정복근(편제)	10만원	• 유민환(편제)	10만원	• 김우중(관리)	10만원		



김철순



최우철



정광수



성경환



김부영



정복근



김형욱



김조곤



유민환



윤홍섭



진성수



김우중



이경기



조승필

회비와 발전기금을 보낼 계좌번호

연회비는 사우회에 대한 회원들의 관심이고 사랑입니다. 회원들께서 보내주시는 연회비는 사우회 운영과 경조비로 사용됩니다.

회비를 미납하신 회원들께서는 사우회가 드리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쉬움도 생깁니다. 발전기금은 사우회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됩니다. 사우회를 아끼는 마음에서 금액에 상관없이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비 납부와 발전기금에 관한 정보는 사우회 홈페이지(mbcsau.com) 또는 사무처(722-7416)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납부계좌 : KEB하나은행 158-890070-29405 MBC사우회

사우회 가입을 환영합니다



▶오영근(관리)

1987년 총무국 입사.
제작운영부, 관재부
등 근무. 경영지원국
부국장. 2024년 퇴사.



▶최형중(편제)

1987년 영상미술국
입사. 영상미술국장,
홍보심의국 위원 등.
2021년 퇴사.



회/원/동/정/

정길화(편제)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원장 임기를 마치고 동국대 한류
융합학술원 특임교수 및 초대 원장으로 부임했다.

한 여름의 청량淸涼한 이야기

최 천
(기술, 부회장)

기술부문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사우들의 모임인 'MBC기술인동우회'(약칭 기우회)는 40년 가까운 역사를 갖고 있는데 회원들 간의 友愛는 아는 사람은 다 알만큼 매우 돈독합니다. 그동안 선후배 간의 애정을 보여주는 사례들이 수없이 많았는데 최근 있었던 훈훈한 美談 하나를 소개할까 합니다.

현재 83세인 임웅길 회원은 젊은 시절 과도한 업무를 감당하느라 치아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 현재는 치아가 단 세 개밖에 남지 않아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었습니다. 평소 절친한 기술부문 후배 김재균, 김상훈, 석원혁 세 사람은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자 존경하는 임웅길 선배의 건강과 편안함을 위해 뜻을 모으기로 합의합니다. 임 선배에게 필요한 임플란트 수술을 위해

각각 200만원 씩 총 600만원을 각출했습니다. 완벽한 시술을 하기 위해서는 많이 부족한 금액이었지만 이들은 우선 이 돈으로 일부라도 시술을 할 수 있도록 적당한 치과를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이 어찌다 홍석진 회원의 귀에 들어 갔습니다. 평소에도 어려운 이웃들을 자주 보살피고 장애인단체 등에 크고 작은 금액을 남몰래 후원해온 홍 회원이 그냥 지나칠 리 없었습니다.

홍 회원의 부인 김영자 씨는 은평구 연신내에 자리잡은 『새은치과의원』 원장님입니다. 『새은치과의원』은 친절하고 실력 좋기로 소문이 나서 언제나 대기 환자들이 줄을 잇는 유명한 치과의원입니다. 선배의 불편을 해소해주려는 후배들의 가목한 마음씨에 감동한 홍석진 회원 내외분은 임웅길 회원의 상태를 살펴봤습니다.

굳이 전적을 하자면 2천만원이 넘는 시술비가 필요한 치료였지만 600만원에 시술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물론 임웅길 회원은 후배들의 제안을 처음 접하고 펄쩍 뛰면서 “뜻은 고맙지만 마음만 받겠다”고 완강하게 사양했다고 합니다. 피차 늙어가는 처지에 후배들 또한 그닥 넉넉하지 않은 살림인 줄 잘 알기에 선의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부담스러웠겠지요. 그러나 후배들 또한 만만찮았습니다. 끈질긴 설득이 오랜 시간 이어졌고 게다가 홍석진 회원 내외분의 설득이 더해져서 결국 후배들의 뜻을 받기로 했습니다. “후배들 신세를 지기 싫어서 계속 거절했지만 그들의 진심을 알고나서 마음이 바뀌었다”고 임웅길 회원은 감동의 마음을 토로했습니다.

현재 임웅길 회원은 임플란트 수술의 초기 단계인 기동을 세운 상태라고 합니다. 시간이 흘러 기동이 단단하게 자리를 잡으면 그 위에 치아를 씌우겠죠. 임플란트가 완성되면 인상도 달라집니다. 음식을 잘 씹으면 소화도 좋아져서 건강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루 빨리

시술이 끝나 선후배가 함께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올 여름처럼 끔찍한 무더위에 한 줄기 시원한 바람처럼 청량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일은 기술부문 내 선후배 간의 끈끈한 유대와 돈독한 우애를 보여주는 작은 사례에 불과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美談은 계속될 것이며 관계 또한 더욱 진하게 엮어질 것입니다. 쓰다보니 너무 기술인들의 자랑만 늘어놓은 것 같아 송구스럽습니다. 더운 여름 잘 마무리하시고 건강한 가을 맞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새은치과 의원

경조사항

구순: 황규봉(대구) 35.09.17 권태수(기술) 35.11.05

팔순: 정영희(ANN) 45.09.23 김동성(편제) 45.10.01 위호인(관리) 45.10.04
주규만(전주) 45.10.25 홍성기(관리) 45.10.26 정봉일(대구) 45.11.05
한웅희(업무) 45.11.12

고희: 김형태(편제) 55.09.21 김준원(기술) 55.10.06 소원영(편제) 55.10.15
강호진(편제) 55.10.30 서영호(보도) 55.11.03 채규태(편제) 55.11.05
김평호(편제) 55.11.09

회갑: 이동원(관리) 64.09.19 김애경(관리) 64.10.10 차동진(기술) 64.11.08

결혼: 이종태(관리) 아들 08/31 정수열(편제) 딸 09/07
박성희(관리) 딸 09/08 김승철(편제) 딸 10/4

부음: 한범수(편제) 모친상 07/26 김상철(보도/경제기자) 장모상 08/02
이명순(ANN) 모친상/김기덕(편제) 장모상 08/13
김세일(관리) 모친상 08/07 손관승(보도) 장모상 08/15
김사성(관리) 배우자상 08/17 윤영례(업무) 부친상 08/27

연회비

평생회비: 최형종(편제), 이우상(기술), 오영근(관리)

2024년: 유민환(편제), 이응주(편제), 문진영(보도), 김철동(기술),
이종숙(관리), 이원형(업무), 이영호(대구)

주소변경 / 신규

편제: 김조곤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로8길 39(남가좌동, 한양플러스view)
임경수 서울 양천구 남부순환로83길 18(목동 센트럴 아이파크 위브 2단지)
최형종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숲속마을2로 128 (풍동)

보도: 이우호 서울 은평구 진관3로77(은평뉴타운 구파발)

기술: 이우상 서울 서초구 바우피로 103 (양재동, 우성아파트)

조영연 경기 용인시 기흥구 마북로154번길 19(용인 센트레빌 그리니에)

관리: 강지현 서울 은평구 갈현로4길 44 (신사동)

권선장 경기 파주시 문산을 당동1로 52(한양수자인 리버팰리스)

안병태 경기 광명시 디지털로 64 (철산한신아파트)

오영근 서울 강서구 금남화로 167 (방화8단지 개화아파트)

이종열 경기 의정부시 동일로 400 (장암동, 신곡우성아파트)

권현주 강원 강릉시 월대산로23(강변코아루 오투리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金宏安(대구)
6월 25일 별세.
향년 80세. 1970년
대구MBC 기술국
입사. 1998년 퇴사



鄭承浩(대구)
7월 2일 별세. 향년
81세. 1976년 대구
MBC 기술국 입사.
1998년 퇴사.



吳柱煥(업무)
7월 11일 별세.
향년 76세. 1982년
광고국 입사. MBC
프로덕션 근무.
1994년 퇴사.



金永韓(관리)
7월 12일 별세.
향년 70세. 1981년
보도국 입사.
1998년 퇴사



金準喆(미주)
7월 29일 별세.
향년 90세. 1961년
보도부 기자 입사,
미주지사장. 1976
년 퇴사.



金榮洙(보도)
8월 2일 별세. 향년
89세. 1973년 보도
국 입사. MBC 사장
(88년 11월~89년 2월)
역임



吳學均(기술)
8월 13일 별세. 향년
74세. 1969년 기술국
입사. 기술부 조명
담당. 1998년 퇴사.



崔圭斗(관리)
8월 22일 별세.
향년 92세. 1972년
시설관리국 입사.
1992년 정년 퇴직.



柳濟國(편제)
8월 25일 별세. 향년 83세. 1968년 PD 입사.
라디오국장, 기획이사. 안동MBC 사장 등



張英培(보도)
8월 31일 별세. 향년 82세. 1979년 입사.
사회부장, 일산제작센터 건설국장,
전주MBC 사장 등.

추모의 글

작은 거인 ‘장캡’ 선배님



양영철
(보도, 부회장)

70년대 후반, 서울시경을 출입하는 팔팔하고 패기 넘치는 사건 기자들을 지휘하시던 장영배 선배는 ‘시경캡’을 떠난 뒤에도 선후배들에게 오랫동안 ‘장캡’(張Captain)으로 불렸습니다. 장 선배는 보도국에서도 가장 힘들다고 소문 난 사회부장을 세 차례나 역임하시고 논설위원 등을 거쳐 고향인 전주MBC 사장을 지내셨습니다. 그는 탁월한 리더십으로 회사를 경영하여 역대 최전성기를 구가함으로써 최고의 자

부심을 안겨줬던 작은 거인입니다. 역량 있는 신인들을 과감히 발탁하고 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통큰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당시 전라북도 지사가 ‘중요한 정책은 반드시 전주MBC의 자문을 받도록 하라’는 지시를 내릴 정도로 회사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2000년도 남북정상회담 직후, 전국 언론사 사장단이 북한을 방문했을 때는 김정일 위원장에게 ‘대한민국에 오게 되면 모악산에 있는 조상의 묘를 찾아보시라’고 담대하게 권하기도 했습니다.

평소 건강 관리를 잘하셨기에 장 선배가 담도암 수술을 받았다는 소식을 연초에 접했을 때는 전혀 믿기지 않았습니다. 수술을 받

고 나서는 문기회文記會와 전언회全言會 단독방에 당신의 투병 경과를 상세하게 올리고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것을 다짐하는 강한 의지를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병세가 악화되어 수술 후 불과 반년 만에 우리 곁을 떠나시다니요.

생전의 장 선배는 풍악을 즐길 줄 아는 ‘풍류남’이었습니다. 은퇴 후 예술의 전당에 있는 국립국악원에서 배운 국악을 술자리에서 거침없이 풀어놓아 동석자들을 즐겁게 했습니다.

4년 전에는 부인 김정희 여사와의 금혼식을 앞두고 고향집을 그리워하는 단상 등을 정리한 시집도 출간했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시가 100여 편이 된다’면서 두 번째 시집을 내겠다는 의욕을 보이셨었구요. 크든 작든 모임이라면 빠지지 않고 참석하여 후배들과 담소하기를 즐기셨던 장 선배의 빈자리가 너무도 크게 느껴질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장캡 선배님. 이제 세상의 고단함은 모두 떨쳐버리고 부디 편안하게 쉬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가세요.



코칭 이야기



▶온전한 존재로 바라보기

“선배님, 안식년에 뭐 하실 거예요?”

“응, 이번에 강영은(ANN) 코치자격증 받았으니까 기회 되면 코칭하려고 해.”

“코칭이요? 그게 뭐예요? 스포츠 코치 같은 거예요?”

37년 직장 생활 마치기 전 안식년에 들어갈 때 후배와 나눈 대화다. 코칭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으레 스포츠 코치로 받아들인다. 최근 코칭에 대해 이해하는 사람들이 늘긴 했지만 아직은 코칭이 대중화된 분야는 아닌 게 확실하다.

‘코칭’이란 무엇인가? ‘한국코치협회’는 코칭을 ‘개인과 조직의 잠재력을 극대화하여 최상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수평적 파트너십’이라고 정의한다. 개인이나 조직의 잠재력을 끌어내 목표하는 것을 이루도록 도와준다는 넓은 의미에서 보면 스포츠 코칭도 당연히 포함된다. 코치(Coach)의 어원은 1,500년대 헝가리의 도시 코치(Kocs)에 등장한 ‘말이 끄는 사륜마차’에서 유래했다.

당시 이 마차는 유럽 전역으로 퍼졌는데 출발지점에서 원하는 지점까지 이동시켜주는 운송수단인 마차를 ‘코치’라고 불렀고 그 단어가 지금의 코칭(coaching)이 된 것이다. 운송수단의 단어가 어원이 된 경우는 한 가지 더 있다. 기차(train)다. 정해진 선로를 따라 도시에서 도시로 집단을 이동시키는 기차는 ‘훈련, 단체 교육을 뜻하는’ 트레이닝(training)이 됐다.

코칭과 트레이닝 모두 개인이나 집단이 목표를 달성하도록 원하는 방향으로 가게 하는 도움의 수단이지만 속성에는 차이가 있다. 트레이닝은 트레이너가 주도하는 훈련으로 트레이너가 정한 방향과 방법에 따르는 것이다. 반면 코칭은 코치와 고객이 함께하는 좀 더 개별화된 것으로 고객의 자발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속성이 있다. 코칭이 중요하게 여기는 자발성은 ‘인간을 어떤 존재로 바라보느냐’는 관점에서 비롯된다.

코칭은 ‘모든 사람은 온전하고(Holistic) 해답을 내부에 가지고 있고(resourceful) 창의적인(creative) 존재’라는 철학을 가지고 있다. 사람은 누구나 온전한 존재로서 자신의 삶과 직업에 있어

자신만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창의적이며 완전성을 추구하는 욕구가 있으며 내면에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내적 자원이 있다고 믿는 것이다.

내가 코치가 되겠다고 마음먹은 가장 큰 이유는 ‘인간을 바라보는 코칭의 관점과 믿음’ 때문이었다. 온전하고 창의적이며 해답을 내부에 가지고 있는 존재가 바로 당신이라고 믿는 누군가가 나의 존재 의미를 발견해주고 내 안에 숨어있는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얼마나 든든한가?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온전한 존재를 돕는 조력자의 삶은 또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렇게 온전한 존재로서 인간을 바라보는 코칭의 관점이 사회 곳곳에 전해지면 좋겠다.

세상의 시끄러움은 ‘너는 온전하지 못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존재니 잘 아는 내가 알려 줄게’ 하는 상대에 대한 존중감의 결여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부모가 자식을, 조직의 리더가 조직원을, 선배가 후배를, 선생님이 학생을, 정치인이 국민을 온전하며 창의적이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내적 자원을 가진 존재로 보고 함께 가는 파트너십을 발휘한다면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꿈꿔 볼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앞에 있는 사람에게 말해보자. “당신은 온전하고 창의적이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내적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감은 세상을 변화시킨다.

코치에게 공감 능력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코치 자격시험에서 코치의 공감 능력은 중요한 평가 기준이다. 코칭에서 공감은 고객에 대한 코치의 판단중지에서 출발한다. ‘판단중지’란 고객의 말이나 생각, 행동을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않는 것이다.

코치의 생각이나 평가, 판단을 ‘코치의 예고’라고 하는데 ‘코치의 예고’를 내려놓고 고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고객은 스스로 나아갈 힘을 가진다.

코치는 지금 고객의 마음 상태는 어떤지,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고객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도울 것인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것은 고객의 이슈, 문제가 아니라 고객의 존재에 집중하는 것이다. 만약 문제에 집중하면 빨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에 코치의 생각과 판단이 개입하기 쉽다. 그러나 사람에게 집중하면 고객의

입장에 서서 보게 되고 고객을 깊이 이해하고 고객의 감정과 생각에 공감하게 된다.

공감 능력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큰 힘을 발휘한다. 미국 하버드 의대의 연구에 따르면, 환자에 대한 의료진의 공감이 환자의 회복에 큰 영향을 끼쳤고 공감 능력이 뛰어난 부모의 자녀가 자신의 잠재력을 더 잘 발휘했다. 연인이나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공감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처럼 삶의 모든 분야에서 공감은 큰 영향력을 미치고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 낸다. ‘공감한다’의 영어 표현은 ‘그의 신발을 신다(stand in one's shoes)’다. ‘타인의 신발을 신는다’는 것은 타인의 기분이나 감정을 읽고 상대방의 관점에서 그가 바라보는 대로 세상을 보는 것이다.

그러기에 공감은 타인과 교감하고 협력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큰 힘이 되는 중요한 능력이며 세상을 변화시켜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MZ세대와 ‘3요’

“기업 임원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는 MZ세대들의 ‘3요’란 무엇인가?” 한 TV퀴즈프로그램에서 나온 문제다. 이 문제의 정답은 ‘이걸요?’ ‘제가요?’ ‘왜요?’다. 납득이 돼야 업무 지시를 받아들이는 MZ의 특성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다. 이 정답에 대해 출연자들의 반응은 세대별로 달랐다. 젊은 세대는 ‘3요’가 당연하다는 반응이었고, 윗 세대는 ‘이런 질문을 받으면 당황스러울 것 같다’는 반응이었다.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딸과의 일화(逸話)가 떠올랐다. 딸이 대학원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시작했던 어느 날, 불만이 가득한 얼굴로 귀가했다. 딸이 하던 업무가 있는데 프로젝트 책임자가 갑자기 다른 업무를 맡겼다고 ‘왜 그 일을 자신이 해야 하는지 설명도 없었다’는 불만이 었다. 딸의 얘기를 듣다가 “그게 뭐가 문제야? 위에서 하라고 하면 해야 하는 거 아냐?”라고 별 생각없이 말했다. 그러자 딸은 “엄마, 납득이 돼야지 납득이” 하면서 ‘엄마랑은 말이 안 통한다’며 화를 내고 방으로 들어 가버렸다.

MZ세대의 등장은 여러 분야에서 기존의 방식에 대한 도전이 되고 있다. 젊은 날 상사가 업무를 지시하면서 ‘이유불문하고 까라면 까’ 하면 무조건 “예”하던 시대를 살

았던 윗 세대로서는 “이걸 왜 제가 해야 돼요?”라는 MZ세대들의 반응이 당황스럽고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 그러나 어차피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도 없고 강요해야 안 된다는 것을 알기에 윗 세대가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는 요즘이다. 그러다 보니 이런 상사와 부하 직원 간의 소통 문제를 이슈로 코칭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보자. 지난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요구를 아무런 설명도 없이 지시하던 상사에 대해 나는 어떤 마음을 가졌었는지, 겉으로 표현하지 않았을 뿐 마음속으로는 바로 그 ‘3요’를 외치고 있지는 않았었는지.

소통의 문제는 ‘누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행동방식 차이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해결의 출발점이다. 나의 가치와 행동방식만 주장하고 상대의 그것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두 사람은 영원한 평행선이 된다. 기성세대는 MZ세대가 어떤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며 그들의 행동방식은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이해하고, MZ세대는 기성세대가 살아온 방식과 가치를 이해하는 것이 소통의 필수 요소다.

MZ세대의 ‘3요’에 대해 사람들은 여러가지 대응 방법을 말하고 있다. 고객의 자발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코칭의 관점에서 보면 MZ세대의 질문은 환영할 만하다. ‘왜 제가 이것을 해야 돼요?’라는 질문에는 강요가 아닌 ‘일의 가치를 알고 스스로 선택해 잘해 보겠다’는 숨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인간은 누구나 선한 의도를 갖고 있다고 믿는 코치이기에 질문 안에 숨겨진 긍정적 의도를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닌 ‘제대로 알고 잘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하고 싶다.

직장에 “왜 이걸 제가 해야 돼요?”라고 묻는 부하직원이 있다면 ‘어디 감히 토를 다느냐’는 끈대의 마음을 내려놓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가기 위한 코치의 마음으로 대해보자. 신나게 일하는 후배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상사에게 “왜 이걸 제가 해야 돼요?” 질문하고 싶은 MZ세대에게도 부탁하고 싶다. ‘잘하려고 하니 자세히 설명해 달라’는 말을 덧붙여 질문해보자. 분명 나의 성장을 돕는 멋진 선배를 만나게 될 것이다.

김승월 칼럼



김승월
(편제·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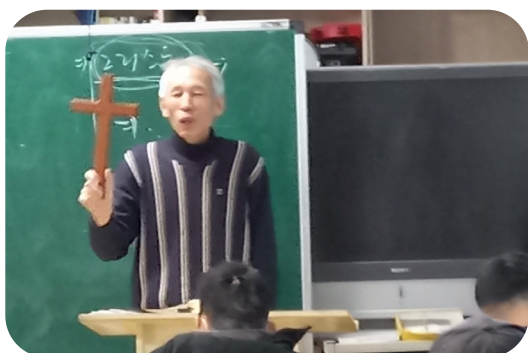
“시신은 기증하고 부고는 임종 후 2주 뒤에 전하라는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김영한(관리) 회원의 아들 김진엽이 말했다.

그가 위중하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나저제나 문병할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문병은 커녕 문상도 못 하고 보낼 수밖에 없게 됐다.

그가 입원했다는 소식은 박상규(관리) 사우가 전해줬었다. MBC 자료부에서 점심시간마다 함께 달리를 하고 같이 밥 먹으며 단짝처럼 붙어 지낸 사이였단다.

김 목사가 입원했다는 소식은 박상규(관리) 사우가 전해줬다. MBC 자료부에서 점심시간마다 함께 달리를 하고 같이 밥 먹으며 단짝처럼 붙어 지낸 사이였단다. 그가 오랜만에 안부 전화를 했더니 김 목사가 병색이 짙은 목소리로 “북부! 북부! 병원! 아파!”하더니 통화가 끊어져서 서울북부시립병원에 전화를 걸어 물어보니 ‘54년생 김영한’이 입원해 있는데 가족이 아니라서 환자의 상태를 알려 주지 않더라. 그래서 그는 나에게 전화를 걸어 “목소리가 꼭 내 동생이 죽기 전에 내던 소리 같아요. 사우회를 통해 환자 상황을 알 수 없을까요?”라고 했다.

사우회 사무처장이 김영한 목사와 함께 사목했던 이원용(전 MBC PD) 목사에게 물어봤더니 ‘신장암 말기로 암세포가 몸 전체에 퍼져 북부시립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다고 했다. 소식을 들은 박상규는 “제가 그분 성격을 잘 알아요. 무작정 갔다가는 못 만날 수 있어요. 우선 문자를 보내고 기회 되면 병문안 같이 갑시다”라고 했다.



마태교회에서 설교하는 김영한 목사

며칠 후 ‘병문안 가고 싶다’는 그의 문자에 답이 왔다. “회복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어서 내가 보낸 문자에 대한 답도 마찬가지로였다. “미안합니다. 힘들어서 그러니 연락 없어도 이해해주십시오.” 그 문자를 내게 보내고 닷새 후인 7월 12일, 김영한 목사는 우리 곁을 떠났다.

며칠 후 이원용 목사를 만났다. MBC를 퇴직하고 목회자가 된 그는 노숙자를 돌보는 마태교회 담임 목사다. 그는 김영한 목사의 발병에서부터 사망에 이르는 과정을 소상히 알고 있었다. “작년 6월, 김 목사한테서 전화가 왔었어요. 수요일마다 하던 설교를 더는 할 수 없게 됐다고.”

사연인즉 이렇다. 김 목사가 허리가 많이 아파 동네 병원에 갔더니 척추가 협착됐다는 진단이 나왔다. 치료를 열심히 받았지만 차도가 없자 종합병원에 가서 MRI 촬영을 했다. 말기 신장암으로 암세포가 척추로 전이돼 협착이 생긴 것이었다. 그러자 김 목사는 ‘기도원에 들어가 금식기도를 하다가 천국에 갈테니 자기 상태를 누구에게도 심지어 가족에게도 알리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단다.

그러나 그럴 수는 없었다. 이 목사는 고민하다가 가깝게 지내는 김 목사 여동생에게 ‘오빠 건강 상태가 안 좋은 것 같다’고만 알렸다. 여동생을 통해 김 목사 상황이 미국에 사는 가족에게 전해졌다. 한국에 있는 큰아들이 휴가를 내 아버지가 운영하던 약국 폐업을 도왔다. 가족의 설득으로 아산병원에 입원해 척추에 통증을 일으키는 암 덩어리를 제거했다.

지난해 나는 박상규 사우와 함께 김 목사를 두 차례 만났다. 3월에 김 목사의 칠순을 축하하는 소박한 점심을 했고, 11월 26일에는 동갑인 나의 칠순을 기념하는 조촐한 자리를 또 가졌다. 마지막 만남이 된 그 자리에서도 그는 자신의 병에 대해 한마디도 입에 올리지 않았었다.

올해 초, 상태가 악화돼 북부시립병원 호스피스병동에 입원했다. 호스피스 병

어떤 삶과 죽음

- 藥師, 牧師 김영한을 추모함

동 입원 기한은 두 달. 두 달이 지나 동부시립병원으로 옮겼다. 다시 두 달 뒤 북부시립병원으로 돌아왔다. 그때 박상규 사우가 문안 전화를 했던 것이다. 임종 5일 전에 그를 만난 그의 동료 나광화 목사는 “마지막 시간을 고독과 침묵, 묵상으로 보내셨습니다”라고 전했다.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 겻세마니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며 기도하는 예수님의 형상이 떠올랐다. 그도 예수님처럼 홀로 피눈물의 기도를 드렸겠구나.

그는 아들에게 ‘예수님 잘 믿고 천국에서 꼭 만나자’는 말을 남겼다. 시신은 모교 고려대 대학병원에 기증하고 아버지가 보고 싶으면 고대 교정에 서 있는 김성수 동상으로 오라고 했다. 아들은 반대했지만 그는 완강했다. 그래서 시신 기증 절차를 밟았다. 그가 숨을 거두자 고대 병원에 연락했는데 뜻밖의 답변을 들었다.

“의료진 파업으로 해부학 교실이 진행되지 않아서 시신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병원을 소개해 줄 수는 있다고 했지만, 아들은 없던 일로 했다.

장례식장을 급하게 수소문했고 나광화 목사를 주례로 가족과 가까운 친척들만 모여 조촐한 입관, 발인 예배를 드렸다. 예배를 마치자 곧바로 벽제 화장터로 향했다.

김영한은 1980년대부터 신림동 고시촌에서 기드온 성경을 나눠줬었다. 토요일에는 관악경찰서 유치장에서 선교 활동을 15년쯤 했다. 함께 봉사했던 이원용 목사의 기억이다. “마약중독자였던 한 수감자가 어느 날 잠에서 깨어 보니 자기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감동으로 그는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마약을 끊었다는 편지를 보냈어요. 유치장 담당 목사가 그 일이 일어난 날 그 시간에 설교한 사람을 찾아보니 바로 김영한 집사였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김 집사에게 신학을 공부하라고 권유했대요.”

김영한은 야간으로 북한선교신학원을 마쳤다. 목사 안수를 받자마자 IMF 사태가 터졌다. 주님의 뜻으로 여기고 MBC에서 명퇴



김영한 칠순 점심
왼쪽부터 김영한, 박상규, 김승월

했다. 의료 선교의 꿈을 꾸며 필리핀 라쉬움 대학에서 약사와 치과의사 과정을 밟았다. 한국 약사 면허를 따서 약국을 차렸다. 퇴근 후에는 건대역, 신도림역에서 십자가에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라는 슬로건을 걸고 노방전도를 했다. 토요일마다 성남시 상적동 옛골에 있는 은혜교회에 설교 봉사를 나갔다. 성도가 20명 안팎의 작은 교회였다. 나광화 담임 목사의 말이다.

“버스에서 내려 십 리 길을 걸어야 다다르는 외진 곳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차도 없이 매주 한 번씩 그 먼 길을 17년이나 다니셨습니다.”

옛골의 교회와 계약이 끝나자 영등포역 노숙인 공동체 마태교회로 자리를 옮겼다. 이원용 담임목사의 말이다. “매달 후원금을 내주시고, 명절에는 노숙인들에게 고기도 사주시고 특히 장애인 노숙인들에게 봉투도 주셨습니다.” 김 목사의 아내도 목사로 미국의 한 기도원에서 마약중독자, 노숙인들을 위해 봉사하고 있다. LA에 사는 작은 아들은 의사다.

김 목사는 한국에서 약사와 목사를 하며 혼자 살았다. 큰아들 김진엽의 말이다. “아버지는 존경할 수밖에 없는 분입니다. 늘 시계처럼 사셨어요. 약사 시험공부를 할 때는 긴 시간을 몰입해서 공부하시는 모습이 너무 멋졌어요. 아버지는 70대 중반에도 약국을 접고 해외 의료 선교에 나가려고 하셨던 분입니다”

어떻게 살다가 죽는 게 바람직한 모습일까. 김영한 목사의 죽음을 보며 드는 생각이다. “사랑하는 사람과 지금은 이별하지만, 잠시 후 천국에서 다 같이 만나 영원히 같이 살게 됩니다” 그가 쓴 『로마서 말씀 읽기』에 실린 글이다.

〈나의 MBC시절〉

미국 대통령 선거 보도

11월에 치러질 미국 대통령 선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난날 워싱턴특파원으로 일하면서 美大選을 지켜봤던 김상균 회원의 당시 현장기록을 다시 들춰봅니다(편집자)



김상균(보도)

워싱턴특파원이었던 1992년은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였습니다.

당시 부시대통령은 1년 전 걸

프전쟁 때문에 인기가 엄청 높아서 연임은 거의 확실했습니다. 그래서 2월 뉴햄프셔 예비선거를 취재하러 갈 때만 해도 선거 결과에 별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예비선거 전날, 카메라 기자와 함께 뉴햄프셔 선거운동 현장을 갔었는데 우리와 제도도 다르고 낯선 점이 너무 많아 관심을 갖기가 어려워 분위기만 구경한 셈치고 나오는데 미국 여기자들 말을 걸어왔습니다.

'클린턴 단합대회를 하는데 같이 가지 않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가겠다'고 하니 '자기가 안내할 테니 대신 자기를 차에 태워달라'는 거였습니다. 어느 10층짜리 큰 건물 꼭대기에 클린턴 지지자들이 수백 명 모여 있었습니다.

정말 한 번 보고 싶은 미국 정치의 생생한 현장이었습니다. 그날 클린턴 후보는 그 넓은 대회장장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지지자들 앞에서 간단한 연설과 함께 <오 대니 보이>를 섹스폰으로 한 곡 뽑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앞에 서 있던 수십 명의 지지자들의 박수와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이런 장면을 보면서 '클린턴 후보가 적어도 민주당 후보가 되는 건 확실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또 잊지 못할 장면이 있었습니다. 힐러리 여사와 내가 수십 분 동안 마주 보고 서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조금 어둡긴 했지만 힐러리 여사 앞에 서서 이 분과 먼저 인터뷰를 하는 게 어떨까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모로 생각해 봤는데 어떤 경우로든 힐러리 여사 인터뷰는 별 쓸모가 없겠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더구나 힐러리 인터뷰 한다고 했다가 정작 클린턴 인터뷰를 놓치면 어쩌나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지금도 종종 그때 일을 생각합니다. 그후 클린턴 여사가 미국 국무 장관에다 유력 한 차기 대통령 후보로 까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사람 생각이 그렇게 짧을 수 있다'는 경우로 나는 그때 일을 떠올립니다.

늦게 단합대회가 끝나고 클린턴이 문 앞에 서서 지지자들과 악수하며 배웅을 시작했습니다. 나 역시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며 카메라 기자에게 인터뷰 준비를 하도록 했습니다. 내 차례가 와서 미리 준비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서울에서 왔는데, 당신의 한국 정책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원래는 '한반도 정책 Your policy on the Korean peninsula'를 물으려 했는데 순간 영어로 '반도'라는 단어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 그냥 '코리아'라고만 해버린 것입니다.

그랬더니 정말 대답이 청산유수였습니다. "내가 아칸소 주지사 때 한국에 두 번이나 가 봤는데 한국의 경제발전이 대단하더라. 깊은 인상을 받았다."

또 노태우 대통령을 청와대로 예방해 아칸소 주와 한국과의 경제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시간으로는 1분 40여 초 정도였습니다.

그날 나로서는 미국 대통령 후보와 인터뷰하는 첫 경험을 해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인터뷰 내용은 쓰지 않고 간직했습니다. 뉴햄프셔 예비선거에서 클린턴이 1등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7월경 뉴욕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클린턴이 정식으로 민주당 후보가 됐을 때도 그 인터뷰 내용을 쓸 수는 없었습니다. 오로지 그분이 대통령이 되어야 쓸 수 있는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클린턴 후보가 반드시 미국 대통령이 되어야 내가 단독으로 인터뷰한 기사가 빛을 볼 수 있다는 얘깁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 날 저는 평생 가장 바쁜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날 워싱턴에서 하루에 열 번 방송

을 한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종일 방송을 한 셈입니다. 그날 첫 방송은 텔레비전 자막에 내보내는 스포츠뉴스였습니다.

"미국 대통령에 클린턴 후보 당선, 선거인단 확보 400석 육박"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시각 미국에서는 아무도 이런 뉴스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해 방송사끼리 회의를 갖고 미국 서부 쪽 선거가 끝날 때까지는 출구조사 내용을 보도하지 않기로 자체 결의를 했기 때문입니다.

보통 뉴욕에서 현지 시각으로 저녁 6시에 전국 뉴스를 방송하는 게 관례입니다만 이렇게 되면 시차가 3시간이 나는 로스앤젤레스 같은 서부지역은 선거가 아직 끝나지 않은 채 선거결과를 보게 되기 때문에 불합리하다는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해엔 미국 방송들이 저녁 6시에 선거결과를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비슷한 시각에 서울에서 미국 대통령 당선 스포츠뉴스가 나간 겁니다. 미국보다 먼저인 셈이지요. 서울이 난리가 난 것을 알게 된 것은 곧바로 위성청약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워싱턴 시각으로 7시께, 서울 시각으로 아침 9시경에 위성방송으로 대통령 선거방송을 시작했습니다. 그 시각까지도 미국 통신에서는 아무런 보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우연히 프레스센터 관리자로부터 오후 6시에 아메리칸 대학 서보 교수가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를 외신기자들 상대로 브리핑해준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운이 좋았는지 그날 브리핑장에 한국기자는 저 혼자였습니다. 그때 서보 교수는 클린턴 후보가 선거인단이 많은 캘리포니아, 뉴욕 등 10여 개 주에서 우세를 보이고 있어 당선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서보 교수는 조사결과 클린턴은 38개 주에서 409석을, 부시는 9개 주에서 65석을 확보했고 페로는 우세지역이 없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쯤 되면 선거는 사실상 끝난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날 서보 교

수가 선거결과를 브리핑하면서 공화당이 "사상 최악의 참패를 당했다"는 표현을 쓴 게 머리에 남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뉴욕 등 동부지역은 클린턴 강세지역이고, 남부지역 역시 클린턴 강세지역으로 드러났으며, 텍사스 등 부시 강세지역은 무소속 페로 후보가 등장해 표를 빼앗아가고 있어 부시에게 불리한 상황이고, 캘리포니아 등 서부지역 역시 클린턴을 지지하고 있다고 전망한 것입니다.

그러니 공화당으로서 대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명쾌하게 분석 전망한 내용이라 길게 설명하지도 않았습니다. 채 10분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질문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했습니다. 며칠 전 전망이 생각나서 "그럼 지금 선거인단 표로 계산하면 클린턴 후보가 몇 표나 확보할 것으로 보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즉석에서 "380명에서 400명까지 내다본다"고 답했습니다. 전체 선거인단 수가 538명이니까 압승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었습니다.

곧바로 서울로 연락했습니다. 마침 국제부에 최명길 기자가 야근 중이었습니다. 같은 대학 같은 과 후배라 남다른 친근감이 있는 후배였습니다. 이 중요한 순간에 잘 아는 후배가 전화를 받았다는 건 정말 더더욱 행운이었습니다.

긴 얘기가 필요 없었기 때문입니다. 곧바로 "스포츠뉴스 하나 내라. 아침부터 뒤집어질 내용이다"고 농담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 상황은 저는 볼 수가 없었으니 알 수 없었습니다만 곧바로 서울에서 위성청약을 해온 것으로 미뤄 대강 짐작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곧이어 서울과 워싱턴으로 연결된 생방송 뉴스 시간에 나가 클린턴 당선 사실과 그 배경 등을 설명했습니다. 물론 서보 교수가 들려준 내용을 주축으로 해서 말입니다.

선거운동 내내 <뉴욕타임스>나 <워싱턴포스트> 등이 아메리칸대학 교수를 인용해 기사를 쓴 사실

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대학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높은 편이었습니다.

요새 자료를 보니까 미국 아메리칸대학은 선거 예측으로 꽤나 유명한 대학이었습니다. 그중 한 분이 서울에 초청받아 강의를 할 정도였으니 말입니다.

지난 몇십 년간 대통령 선거를 모두 맞힌 경력이 있다고 하네요. 저도 그때 그만큼 아메리칸대학 분석을 눈여겨봤습니다. 그러니 그분 외신기자회견장에 저 혼자 갈 수 있었던 거지요.

그날 서울 시각으로 말하자면 오전 11시, 12시에 이어 오후 2시에 생방송에 출연하는 등 하루 종일 라디오와 텔레비전을 오가면서 방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뉴스시간인 밤 9시 <뉴스데스크> 시간이 왔습니다.

이때도 물론 위성으로 생방송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또 하나 새로운 빅뉴스가 추가됐습니다.

바로 클린턴 대통령 당선자와의 단독 회견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뉴햄프셔 예비선거 때 만났던 그 인터뷰 내용말입니다. 흔한 정치인의 수사였지만 그날 하루 클린턴의 발언은 적어도 뉴스시간에는 천금같은 무게가 있었습니다.

바로 대통령 당선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발언이 바로 MBC 뉴스에만 나갔기 때문입니다.

물론 몇 달째 보관하고 있던 자료였지만 선거기간 중에 만났다고 소개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그 인터뷰 방송이 다른 방송사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던 모양입니다. 다음 날 우리 국제부장은 말 그대로 “입을 다물지 못하겠다”며 좋아했습니다.

상대사는 뉴욕 특파원을 아칸소에 보내 아침 조깅하던 클린턴 당선자를 쫓아가 인터뷰한 내용을 며칠 뒤 톱뉴스로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조깅하던 사람을 멈춰 세워놨으니 옷차림은 짧은 바지에 러닝셔츠 차림인 데다 일부러 그랬는지 카메라 화면을 정면으로 쳐다보지도 않고 등을 돌린 채 韓美 관계에 관한 정책을 말하고 있어서 보기에 좀 민망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 날 워싱턴 특파원들 점심시간에 이 뉴스가 도마에 올라

한 신문사 특파원이 기어코 한 마디 했습니다.

“아니, 자존심도 없나. 뽀스 입고 뛰는 사람한테 그런 질문을 하다니!” 실내 분위기가 엄청 어색해졌습니다. 저는 뭐라 말할 처지도 아니었고요. 물론 제가 잘했다는 칭찬도 없었습니다.

서로 말하지 않아도 알 것은 알고 지나가는 게 記者들의 세계였으니까요. 나중에 그날 상대사에서 야근했던 기자가 우연히 자리를 같이 해서 그날 자신들이 겪은 참상을 스쳐가듯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할 것도 없고 그냥 이 정도로 전하는 게 적절한 것 같습니다. 기자 세계에서 누구나 한번 이상 겪을 수밖에 없는 ‘빛과 그림자’니까요.

2003년 SBS가 클린턴 전 대통령을 서울로 초대했습니다. 저는 문화방송 기획이사 자격으로 초청받아 참석했습니다. 멀리 국회의장, 대법원장과 같이 앉아 있는 그분을 보니까 반갑기도 하고 옛날 생각도 났습니다.

그래서 진행요원에게 쪽지를 써서 ‘전해주라’고 부탁했습니다. “10년 전 뉴햄프셔에서 인터뷰한 기자”라고 하면서 “클린턴 전 대통령의 리더십으로 남북 간에 화해하고 통일하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덕담을 썼습니다.

그가 저를 찾았다고 했습니다. 그 자리에 가서 인사를 했습니다. 클린턴도 일어나서 반갑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누가 한 장 찍어줬으면 펍 의미 있는 사진이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만 남의 회사 행사장이라 저를 찍어줄 리 없는 일이었습니다. 간단한 인사말만 주고받은 채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與野 의원들이 일제히 클린턴에게 다가가 기념사진을 찍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제가 만났게 신호라도 되는 것 같았습니다. 한동안 그쪽 좌석이 소란했습니다. 제 자리에 있던 SBS 이사가 “오늘 비용 절반은 MBC가 내시오”하고 짜증 섞인 농담을 했습니다. 그날 제가 본 클린턴은 안색이 별로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예전처럼 생기도 없고 마치 병원에서 바로 나온 사람처럼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미국 대통령 자리

라는 게 그렇게 힘든 자리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혹 여자 문제 때문에 더 그런가 하는 주책없는 생각도 스쳤습니다. 그리고 뉴햄프셔 경선 당시 힐러리 여사와 마주 보고 서 있었으면서 왜 인터뷰 한 번 하지 않았던가 하는 아쉬움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혼자서는 종종 생각하는 일입니다만 사람이 왜 그렇게 앞을 내다볼 수 없었을까 하는 자책을 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나마 클린턴 대통령을 일찍 찍은 것만으로도 과분한 보상을 받은 셈입니다. 클린턴은 그렇게 말이 많은 대통령이었고 탄핵까지 갈 뻔 했지만 미국 역사상 두고두고 이름을 남길 여러 가지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부부 대통령 기록에 도전하는 처지입니다.

저는 힐러리 여사가 방송에 나와 자기 남편에게 표를 주기 싫으면 안 줘도 좋다고 얘기한 대목이 눈에 선합니다. 또한 자신의 전기《살아 있는 역사》(Living History)에서 클린턴이 르윈스키 사건에 대해 자신에게 사실을 처음 고백했을 때

딸 첼시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강조한 대목이 오래 머리에 남았습니다. 그때 클린턴은 눈물을 글썽거렸다고 합니다. 부모 자식 간에 정말 못할 말, 못할 일이었을 테니까요.

그런 힐러리 여사가 다음 대통령 후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때 바로 앞에서 본 그 조그마한 부인은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작은 거인’이었습니다.

클린턴 대통령이 부인 힐러리 여사의 도움이 아니었으면 대통령 자리에 오를 수 없었겠다는 생각을 강하게 하게 됩니다. 부인 힐러리 여사의 대통령 후보 도전에 남편 클린턴이 어떻게 외조를 할 것인가가 관심사인데 그가 힐러리 여사만큼 외조를 잘 할 수 있을까에 좀 회의적인 생각이 듭니다.

세월이 제법 흘러 벌써 20년 가까이 됐습니다만 아직도 그분의 動靜이 뉴스가 되는 것을 보면 저도 그분들과 맺은 인연이 참 좋았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미국이라는 먼 나라와 맺은 인연과 함께 말입니다. (2014. 10)



클린턴 당선자 인터뷰



MBC 파리올림픽 전체 시청률 최종 1위!

2024 파리올림픽 시청률 경쟁 모든 수치에서 1위 싸슬이

함께
파리
함께
MBC

장혜진 김성주 김대호 이대훈